

## 發信者의 判斷 支持와 談話의 言語形式

李 庸 周\*

### I

어떤 언어형식을 막론하고 담화에서의 의미 내용은 발신자의 判斷과 情意다. 판단이라는 심리적 기능은 대상 경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 야말로 천차 만별의 다양성을 가진다.<sup>1)</sup> 이러한 다양성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표현 機構를 구비한 언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판단의 섬세한 차이가 모두 우리 생활에서 언어에 의해서 표현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과 발신자 자신이 그 섬세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니와 필자의 생각은 거의 부정적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인 사람이 그 다양성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형식은 만들어 낼 수도 없거니와 만들 필요도 없다. 한편 그러한 다양성 내지 차별성이 모두 구별되어야 할 만큼의 유의미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어의 경우에 지지도가 다른 '판단'의 표현 형식이 상당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지도의 차등에 따라 서열을 매겨서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만큼 의미의 영역이 뚜렷이 대립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斷定과 그에 대립되는 낮은 지지도의 판단을 표현하는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인간의 심리는 판단과 정의로 분류하지만 언어가 표현하는 판단에는 자기 자신의 情意가 대상인 것도 포함된다.

여러 종류의 언어형식이 있지만 그들 사이의 의미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거나 記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는 것이다. 한 언어의 어휘가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일시에 만들어진 것<sup>2)</sup>이 아니라는 것도 이와 같은 형편을 낳게 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 II

한때 ‘~같다’는 말이 함부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다소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불확실하고 자신이 없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해서다.

정상적인 한국어 사용자가 다음 B와 같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1) A : 너는 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B : 둘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유행할 수는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예컨대 지나치게 단정을 좋아하거나 주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작된 ‘~같다’, ‘~싶다’ 등의 사용이 (1) B와 같은 형식의 사용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中庸의 道를 벗어난 것이라는 생각이다. 발신자의 판단 지지 여하에 따라서 ‘~같다’, ‘~싶다’ 기타 표현 형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식을 폐기하면 필요해서 만들어진 표현 機構의 일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

2) 그것을 지시하는 언어형식이 필요한 모든 意味單位를 망라해서 그 하나하나에 계획적으로 언어기호를 부여하는 일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언어형식은 무용지물이 아니다. 그 의미 용법은 오랜 시일을 두고 이들 형식이 사용돼 온 결과인 것이다.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다고 해서 이들 형식이 굳어지기 오해될 수 있는 記述이나 教育을 할 수는 없다.

다음 (2)의 각 항을 대조해 보자.

(2) (A : 저게 누구냐?)

B a : 철수예요.

b : 철수인가 봐요.

c : 철수 같아요.

B a, b, c는 모두 A와 같은 묻는 말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답이다. a는 발신자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판단의 표현인 斷定이다. 이에 비하여 b와 c는 그 지지도가 낮은 표현이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의 대답이다. 또 멀리 있을 때는 철수 같기는 한데 단정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철수인 것이 확실해질 때는 c와 a, b와 a 두 형식이 연속적으로 발해질 수도 있다. (2')와 같다.

(2') a : 철수 같아요.……철수예요.

b : 철수인가 봐요.……철수예요.

발신자가 스스로 철수인 것도 같다는 정도의 판단을 하면서 (2) a와 같이 말하는 것도, 철수인 것이 확실한 단계에서 b와 c와 같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무의식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같다'와 '내가 보다' 어느 쪽이 더 높고 낮은 지지도 표현의 형식인가는 구별하기 어렵다. 굳이 구별을 해야 한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가 보다'가 다소 높은 지지도의 판단 표현 형식이 아닌가 한다.

발신자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지지도 인식에 따라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형식을 선택 사용한다.

### III

발신자의 판단이 확실할 때, 더 엄격하게 말하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2) a와 같은 斷定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틀림없이’, ‘분명히’ 등의 어휘소가 첨가되어 쓰인 담화 형식의 의미 내용은 그런 것이 첨가되지 않은 형식의 의미 내용에 비해 판단의 지지도가 낮다.

(3) A : 내 사탕 훔쳐 먹는 게 누구냐?

B : (평소의 소행으로 보아)

a : 철수야. (또는 철수다.)

b : 틀림없이 철수다.

c : 철수가 틀림없다.

철수가 훔쳐 먹는 것을 목격했다면 (3) B의 a와 같은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지나친 천착이지는 몰라도 철수의 행동을 목격하지 않아서 정보 판단의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철수다’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a는 b나 c에 비해서 지지도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 b와 c는 ‘틀림없이’, ‘틀림없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신자의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지지도가 낮음을 함축한다. 철수의 행동을 목격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여 b와 c는 발신자의 추측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담화의 표현 형식이다. 이러한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틀림없다’의 의미 기능의 일부인 것이다.



이런 발화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한국어 사용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같다'의 용법이 바로 경계해야 할 것들이다. 형식적인 통사 방법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 의미 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부자연스럽다. 문법학자들의 말대로라면 문법적으로는 적격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다만 '문법'이니 '문법적'이니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음 (6) a는 자연스럽지만 b는 부자연스럽다.

(6) a : 영이는 일이 바빠서 늦는 것 같다.

b : (약속 시간 한 시간 늦어서 나타나)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많이 늦은 것 같다.

a는 발신자나 수신자가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신자의 추측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b는 발신자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발신자의 말로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추측을 표현하는 어휘소(群)이 사용될 형편이 아니다.

## 2. (~) 싶다.

'~듯 싶다'의 유무로 대립되는 (7)을 대비시켜 생각해 보자.

(7) a : 그는 철학자다.

a' : 그는 철학자인 듯싶다.

b : (내가) 많이 먹었다.

b' : (내가) 많이 먹은 듯싶다.

'(~) 성싶다'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 (8) a : 그 사람 한 번 만났다.  
 a' : 그 사람 한 번 만난 성싶다.  
 b : 그것이 좋다.  
 b' : 그것이 좋을 성싶다.

(8) b의 경우 '좋다'는 본질적으로 발신자의 주관적인 가치 표현의 형식이므로 현실적인 대화에서 b보다 b'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 사용이 아닌가 한다.<sup>4)</sup> 그렇다고 b가 자연스럽지 않다든가 부적격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판단 지지도가 낮은 표현 형식을 택하는 것이 원만한 사회 생활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싶다'도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

- (9) a :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다.  
 a' : ( " ) 좀 먼가싶다.  
 b :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b' :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싶다.  
 c : (나는 지금) 천하 제일의 요리를 먹는다.  
 c' : ( " ) 천하 제일의 요리를 먹는가싶다.

### 3. (~)듯하다. (~)듯

(10)의 a b와 a' b'는 '듯하다'의 유무로 발신자 판단의 지지도가 달라지는 예들이다.

- (10) a : (이 신은 네게는) 좀 크다.  
 a' : ( " ) 좀 큰 듯하다.  
 b : 철수는 일남이를 따라 잡았다.  
 b' : 철수는 일남이를 따라 잡은 듯하다.

---

4) 주관적인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단정'보다는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 방법이 대인 관계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다’가 없이 사용된 ‘~듯’ 또한 지지도의 낮은 판단 표현의 형식이기도 하다.

(11) a : (하늘이 흐려 있는 것을 보니) 곧 비가 쏟아진다.(염소를 몰고 오  
너라.)

a' : 비가 올듯 말듯 하늘이 흐려있다.

(11) a'의 경우 ‘올듯 말듯’은 강우의 여부 어느 쪽 판단도 확실하게 내  
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다음 (11)의 b'는 철수가 죽었을 수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11) b : 철수가 죽었다.

b' : 철수는 죽은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11) b'는 철수가 죽었을 때와 죽지 않았을 때 모두 실현될 수 있는 형  
식이다. 이 때 ‘죽은듯’을 ‘죽은듯이’로 교체하면 철수가 살아 있는 경우의  
표현 형식이 된다. ‘죽은듯이’의 경우는 철수의 죽음에 대한 지지도가 낮  
은 판단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에 사용된다.

#### 4. ~보다.

판단 지지도가 낮은 표현에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

(12) a : 저건 철수다.

a' : 저건 철수인가 보다.

b : 일남이가 왔다.

b' : 일남이가 왔나 보다.

c : 나도 피곤하다.

c' : 철수는 피곤한가 보다.



(12) c'의 경우 '피곤하다'를 사용하면 부자연스럽게 된다. 피곤한 것은 그 주체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는 피곤하다'와 같은 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 5. ~겠

흔히 시제의 미래로 기술되는 형식이지만 다음 (13)과 같은 경우 결코 미래 시제로 볼 수 없으며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

(13) a : 영이는 밥을 먹는다.

a' : 영이는 지금 밥을 먹겠지?

b : 순이는 용모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다.

b' : 순이는 마음씨도 곱겠다.

c : (그런 것은) 나도 한다.

c' : ( " ) 나도 하겠다.

특히 c'의 경우는 '可能性'의 의미가 강한 '~겠'이다. 이것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c와 대비해서 판단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표현 형식이다.

## 6. 기타

다음 (14) a' b' c' d'와 같은 구조의 언어형식은 지지도가 낮은 판단의 표현 형식으로 널리 사용된다. 모두 실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해서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지지도가 낮은 판단을 표현하는 형식들이다.

- (14) a : 문제가 생겼다.  
a' :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b : 철이는 결백하다.  
b' : 철이는 결백하다고 믿는다.  
c : 그가 두목이다.  
c' : 그가 두목이라고 생각한다.  
d : 그 산의 높이는 1500m이다.  
d' : 그 산의 높이는 1500m로 기억한다.

## V

1人稱 이외에 2·3인칭 주어의 경우 앞에서 거론한 바, 지지도가 낮은 판단 표현의 언어형식을 사용해야만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는 어휘소들이 있다. (15)는 감각과 관련된 것들이다. c"는 부자연스럽다.

- (15) a : 나도 춥다.  
a' : 너도 추운가 보다.  
a" : 너 춥다.  
b : 나는 손이 시리다.  
b' : 너 손이 시린 것 같구나.  
b" : 철수는 손이 시리다.  
c : 나 덥다.  
c' : 저 사람은 덥겠다.  
c" : 저 사람 덥다.

더 많은 예를 들 것은 없다. 1인칭 주어인 a~c는 발신자 자신의 감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a'~c'는 지지도가 낮은 판단의 표현 형식이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a"~c"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한국어가 아니다. 문학 작품 같은 데서 특수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일상

언어로서는 거의 부적적이다.

다음 (16)의 경우처럼 주체만이 느낄 수 있는 정신 현상을 指示(refer)하는 어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6) a : 나는 기쁘다.
- a' : 재도 기쁜 것 같다.
- a" : 너는 기쁘다.
- b : 나는 겁스럽다.
- b' : 너도 겁스럽겠다.
- b" : 철수도 겁스럽다.
- c : 나는 무섭다.
- c' : 철수도 무서운가 보다.
- c" : 너도 무섭다.

c"의 경우, 너도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는 적격한 형식이다. 이런 형용사들도 어간에 ‘~어하다’가 붙여지면 인칭으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는데 이것은 사람의 행동을 지시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판단에 대한 발신자의 지지도와는 무관하다.

- (17) a : 철수도 추워한다.
- b : 영이도 기뻐한다.
- c : 모두 무서워한다.
- d : 그는 너무 더워한다.

## VI

지금까지 지지도가 낮은 판단을 표현하기 위하여 발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형식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이지 않으면 부자연스럽거나 아주 부적격한 표현이 되는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언어형식의 사용을 포기하는 일은 오용에서 오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일 수도 있다. 비단 여기서 논의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형식을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학자나 교사들의 일이다.

판단 표현의 경우 그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적합한 언어형식을 선택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sup>

---

5) 본고는 한국어가 가진 판단의 지지도와 관련된 표현 형식을 망라한 것도 아니고 예로 든 형식의 의미 용법을 철저하게 파헤친 것도 아니다. 앞으로 깊고 넓은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다린다.